

# 칼빈신학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로운 선택

## God's Sovereignty and Merciful Election in Calvin's Theology

운 의 세  
(실천신학)

###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하나님의 선택섭리(選擇攝理)
- III. 선택의 근거와 이유
- IV. 선택의 목적과 수단

## I. 들어가는 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선택 교리에 대한 성격적 근거를 설명한 후에 에베소서에 대해 언급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대해서 언급한다. 위대한 삼위일체 찬가가 나오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는 에베소서인들이 받은 모든 은혜의 원천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을 듣고 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3-6)

우리가 이 구절들을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거나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 교리의 핵심 골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바울이 그들을(에베소서인들) “선택된 자”로 호칭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신자된 자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말하므로(엡 1:4) 바울은 인간의 지위 여부를 선택에 있어서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 간의 운명이 왜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외에 그들이 (에베소서인들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예지(豫知)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왜냐하면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행위”는 선택의 결과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선택된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여 놓으셨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엡 1:5) 그들을 예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칼빈은 선택을 받기 위해 인간들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들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이 모든 것은 신의 ‘선택’에서 연원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를 그들을 위해

예비하여 놓으셨다.)<sup>1)</sup>

칼빈은 에베소서 에 대한 주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지 이유에 대하여 언급 하고 있다. 동인(efficient cause)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질료인(material cause)은 그리스도이다. 목적인(final cause)은 그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다. 형식인(formal cause)은 복음의 선포에 있다.<sup>2)</sup>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서 칼빈 신학의 다양성을 고려해 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비로운 선택을 깨달을 때 어떤 기쁨을 주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 II. 하나님의 선택섭리(選擇攝理)

본 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칼빈이 강조한 점을 언급해보자.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적(decretive) 성격의 일이다. 그리고, 선택은 개인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서리적 성격의 일이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칼빈에 따르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다. 하나님의 고유의 서역인 선택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실현될 인간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

1) *Inst.*, 3.22.2(OS, 4:381F). 참고;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pp.68, 126, 128, 134, 140, 145, 158.

2)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on Eph. 1:580. OC, 51:148, 150 (이 주석은 1548년에 초판이 나왔다. 위에서 인용된 기독교 강요의 이부분은 1559년 판에 나왔다) T.F.Torrance는 칼빈이 그리스도를 네 가지 의미에서 선택의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Kingdom and Church*, pp.73, 107). 필자는 그의 견해를 칼빈 신학에 대한 Neo-orthodox Interpretation이라고 생각한다.

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최종적 목적은 주께서 선택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영광에 이르게 한 다음에 이러한 신의 자비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이 어떤 의미에서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모두의 사역이기는 하나 칼빈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사역으로 간주하였다. 성부의 영원한 섭리의 빛 하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해되어야만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 하리라... 나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sup>3)</sup>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안전한 성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sup>4)</sup>

그러나 칼빈은 성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그리스도도 선택을 주도하시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스스로 ‘중재자’로서 나타내셨지만 그도 역시 성부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주장하셨다.”<sup>5)</sup>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16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이다. “내가 너의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뛰어나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아주 특이한 종류의 사람들”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한 자들은 “유기된자”와는 구별되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선택의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셨다.<sup>6)</sup> 우리는 칼빈이 선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고 간주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선택의 장본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선

3) John 6:37(NIV) in 3.22.7.

4) *Inst.*, 3.22.7.(OS, 4:387)

5) *Ibid.*

6) *Ibid* ‘...caeleste decreto... quando Se Christus electionis facit authorem...’ Cf. comments on John 13:18 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OC, 47:310-311).

택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칼빈이 우리에게 대한 선택은 성부, 성자, 성령께 속한 사역이라고 간주하고 있고,<sup>7)</sup> 아울러 삼위 중 성부, 성자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보았다. 칼빈은 선택 결정에 있어서의 성부와 성자가 하신 역할을 강조한 만큼 성령의 역할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령은 물론 선택 교리 논의에 포함되고 있다. 성령은 성경을 영감하신 분이므로 이 교리의 선생이 되신다.<sup>8)</sup>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그의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진행하신다는 것이다.<sup>9)</sup>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로 다양하고 무수하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분의 섭리적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한다. 칼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기'와 마찬가지로 '선택'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다른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신의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God's eternal decree)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섭리에 의하여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다.<sup>10)</sup>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의 영원하시고 만고불변한 계획에 의하여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선택하셨다고 언급한다."<sup>11)</sup> 칼빈은 '영원한 섭리' 혹은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다. 영원한 섭리는 선택의 대상자가 태어나기 전에 선포되었던 것이고,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이며,<sup>12)</sup> 또한 이것은 창세 전에 선포되었던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태 가운데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기로 예정되었다."고 칼빈

7) 참고 : *Inst.*, 1.13 and 1.16-18 9 (OS, 3:108ff., 187ff.)

8) 참고: *Ibid.*, 1.6-9 ( OS, 3:60ff).

9) The whole of book 3, "De modo percipiendae Christi gratiae" and 3.1 "Quae de Christo dicta sunt, nobis prodesse, arcara poeratione Spiritus" OS, 4:1

10) *Institutes* 3.21.5 (OS, 4:374). see chap I, note 58 above.

11) *Ibid.*, 3.21.7 (OS, 4:378f) See chap. I, note 59 above.

12) *Eternal Predestination*, p.121 (OC, 8:313).

13) 에베소서 1:4, OC, 51:147. 시간과 영원과의 관계의 대한 질문이 아주 복잡한 것이기는 하나 칼빈은 Edward A. Dowey, Jr.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추상적 의미에서 "preced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p.187).

은 언급하고 있다.<sup>14)</sup>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사색하기를 거부한다.<sup>15)</sup> 오히려 그는 완벽한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역사사에 나타난 그분의 행위에 앞서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에 대해 모두 언급하므로써 신의 “예정”과 “섭리”를 그의 신학 가운데서 매우 밀접한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다. 1539년과 1554년 사이에 출판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동일한 장에서 양 주제(예정과 섭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559년에 나온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정’을 제3권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 순서의 재배치는 결코 칼빈 신학의 내용 변화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섭리에 대하여 논의할 때 그는 이와 더불어 신의 예정-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칼빈이 예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는 반드시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여 있다.

현대 신학의 흐름을 살펴 볼 때 이점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 칼빈이 선택을 언급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다. “영원 전부터 그가 하시고자 하신 것을 결정하시고, 이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지배자요 통치자이시다.”<sup>16)</sup>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해 보도록 요구한다. 즉, 피조물에게는 어떤 신비한 능력도 찾아 볼 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신묘막측한 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

14) *Inst.*, 3.21.5 (OS, 4:374). 참고 :chap. I, note above.

15) 칼빈이 “supralapsarian”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다. 참고; Otto Weber, *Calvin*, p.1594; Dowey, *The Knowledge of God*, p.186; Wilhelm-Albert Hauck, *Die Erwählten : Prædestination und Heilsgewissheit nach Calvin*, p.19; *De l'electioneternelle de Dieu : Actes du congres international de theologie calviniste*, Geneve, 15-18 Juin 1936. While Calvin may be called a supralapsarian in the earlier usage of that term, later both infralapsarians and supralapsarians agreed that adam's fall had been decree by God. calvin did not speculate about a logical order of the divine decrees and hence os not a supralapsarian in the later sense of the term, 참고: D.R.Polman, *de prædestinatintieleer van Augustinus, thomas van Aquino en calvin: Een dogmahistorische studie*, pp.348f., 377; Hein Otten, *Calvins theologische anschauung von der Prædestination*, pp.97f.

16) *Inst.*, 1.16.8 (OS, 3;198f).

의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여 나가며, 그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포된 계획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있는 일도 일어날 수 없다.<sup>17)</sup> “섭리에 대해 포괄적이고 집약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로서도 킬빈은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과 계획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의 섭리는 모든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신의 섭리에 의해 우리는 선택과 유기와 양자 택일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sup>18)</sup>

선택은 특별한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 결정은 특이하고도 특별한 사건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택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관심을 반영하거나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러한 섭리(선택과 유기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기로 약속한 ‘개개인’(물론 현재 태어나지 않은 자도 해당됨)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섭리는 선택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을 제공하여 준다. 하지만, 칼빈이 주장하는 개인의 선택이 곧 그의 개인주의를 지향(指向)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칼빈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신의 애정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국 중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주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고 언급한다. 이와 같이 그분은 한 민족의 선택 및 직분자의 선택을 구원에 이르는 개인선택과 구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선택의 종류<sup>19)</sup>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아량을

17) Ibid, 1.18.2(OS, 3:2230. Cf.3.23.6: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결정과 명령하심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은 명확하다.”

18) Ibid., 1.18.2(OS, 3:223). Cf.also 3.24.17, 여기에 나온 언급은 1.18에도 나와있다. 역시 3.23.3, 5,6,8,9,를 주목하라. 여기서 예정과 섭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따금씩 양단어는 서로 맞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Torrance가 Calvin은 Aquinas와 같이 선택을 “Pars providentiae”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점에 있어서는 옳지만 칼빈이 아들교리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Kingdom and Church, p.4.cffHauck, *Vorsehung und Freiheit nach Calvin*, pp.11 ff., 20f; Hauck, *Die Erwählten*, pp.33ff; and Paul Jacobs, *Prädestination und Verantwortlichkeit bei Calvin*, pp.67f.).

나타낸다. 그러나 그들(직분자로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과 선택함을 받은 민족에 속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예서는 선택된 국가의 한 일원이었으나 그는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였다. 예서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나 그것이 곧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중 한 사람이었고 직분을 맡은 자였으나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칼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비스런 계획에 의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하고 또 다른 자는 유기하심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개인에 대한 선택을 고찰함이 없이는 신의 선택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sup>20)</sup>라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된 “개개인들”만이 “그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을 받게 되며 그러므로써 “그들은 절단코 그들이 받은 구원을 받은 구원을 상실치 않게 된다.”<sup>21)</sup> 이렇게 선택된 자들은 신적공동체(神의共同體)로 모이게 된다.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택 자들을 한 군대로 모으시고, 그들을 꿰을 수 없는 끈으로 그 자신에게 묶어 두신다.”<sup>22)</sup> 상술한 사실은 칼빈 교회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칼빈은 특별 선택(particular election)-개인에 대한 선택-을 아주 명백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적대자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우 하시는 분이신가?”라는

19) Inst., 3.21.6(OS, 4:376-377). 라틴어로는 “Secundus gradus”와 “duos gradus”라는 말로 표현된다. 참고: 요한복음 13:18(OC 47:310-311). Dowe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의 의도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선택의 종류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은 그의 성경의 무오설에서 유래된 것이다. 단순히 형식적인 문자주의에 근거하여 칼빈은 예서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맨 처음 선택된 자였으나 아홉이 축복을 받았을 때에는 거부당했다고 말하고 있다.”(The knowledge of God, p.212) 그러나 예서가 선택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칼빈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변하여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서는 유기된 것이다. 참고: Dowe, *The Knowledge of God*, p.39; and Jacobs, *Prdestination*, pp.57ff.

20) Ibid 3.21.7(OS, 4:377).

21) Ibid.

22) Ibid. cf also especially 4.1,12.



말로 칼빈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칼빈은 적대자들의 반박을 고착하고 나서 이들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논박하고 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즉 칼빈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것들을 그분 마음대로 하는 데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선택되었건 유기되었건 이에 대해 하등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선택된 자들도 유기된 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다. 유기된 자들이 그들의 죄에 의해 궁극적으로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므로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선택)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견해와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므로 마땅히 죽을 자들을 정죄하시고, 그가 자비를 베풀고자 부르신(선택하신)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은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다. 채권자가 어떤 채무자에게는 채무를 변제해 주고 또 다른 채무자에게는 빚진 돈을 강제로 징수한다고 하여서 누가 그 채권자를 나쁘다고 욕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sup>23)</sup> 그리고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주님은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그는 역시 실판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에게는 엄히 책벌을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범죄하므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내려 주시므로 그는 자신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며, 또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중지하므로 그의 '의'를 나타내 보이신다."<sup>24)</sup>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 선민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들이 타민족보다 무엇이 우월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택과 유기는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의에 의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제 갈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sup>25)</sup> "하나님은 그가

23) Ibid, 3.23.11 (OS, 4:405).

24) Ibid. 참고: *Inst.*, p.959 (note 26).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을 늘어 놓는다면, 그들에게 너희가 이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고 물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개로 만들 수도 있었으나 감사하게도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sup>26)</sup> 이러한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칼빈은 바울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문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들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롬 9:20)

상술한 사실에서 우리는 칼빈이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 규정할 때 이러한 정의가 의미이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갈파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의 영원한 섭리는 “창세 전에 의미 각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신의 명령을 의미한다.<sup>27)</sup> 선택에 의해 개개인의 운명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똑같이 보시지 않으셨다. 아니 비슷한 보기도 아니 하셨다. … 하나님은 또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셨다(창 23:12). 하나님은 므낫세를 뒤로 재쳐 두시고 에브라임을 그보다 앞세우셨다.”<sup>28)</sup>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창 48:20). 하지만, 누구도 자기의 운명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주 드문 예외가 있다. 즉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들의 부모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자식들의 운명에 대하여 그분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sup>29)</sup> 그러나 이러한 특이한 예에서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음을 그 부모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자체가 그 부모로 하여금 에서보다 야곱을 더 선호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야

25) Ibid, 3.22.1 (OS, 4:380).

26) Ibid Cf. 3.24.17. and also comments on Malachi 1:2-6.

27) Ibid, 3.21 (OS, 4:374). See chap. 1, note 58 above.

28) Ibid, 3.22.5 (OS, 4:385).

29) “그녀의 아들 야곱의 선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악한 계획을 사용하여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였다.” (창 27:9) Ibid, 3.23.1 (OS 4:41).

곶만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은혜의 수단들(means of grace)이 에서로부터 철회되고 오직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sup>30)</sup>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개인에 대한 신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서 주시기를 거부하신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는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Ⅲ. 선택의 근거와 이유

앞에서 우리는 칼빈은 신자의 구원의 하나님의 영원하고 반박 할 수 없는 섭리에 부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현재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유기 하셨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할 것을 예시(foressee) 혹은 예지(foreknow)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칼빈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제거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칼빈도 이를 수궁하도록 주위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칼빈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된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의지(自意志)와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선택의 근거요 이유가 된다. 인간의 행위가 선택의 근거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가 우리의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되신다. 이에 대해 칼빈의 입장을 좀 더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 칼빈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선택의 이유가 되지 않음을 세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

30) 백인들이 선택된 종족이고, 선택된 종족은 유기된 종족을 지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이며 칼빈의 서술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발견할 수 없다.

고 있다.<sup>31)</sup>

첫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선택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선택자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논리적이질 않다.

둘째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버렸다.

셋째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위로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sup>32)</sup> 칼빈은 우리가 선택된 시기(창세 전)는 우리의 선택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임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한다. 우리가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엡 1:4)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나 가치 유무를 선택하는 데 전혀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 될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sup>33)</sup>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뜻과 은혜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sup>34)</sup>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심오하고 더욱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sup>35)</sup>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야곱과 아세 그리고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를 뚜렷이 구별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만일 그들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므로 구원을 상실케 된다면,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런 선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sup>36)</sup>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것을 예지(foresight)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택자의 선한 행위를 예지하고 그들은 선택하신 것인가? 이것이 선택의 근거나 이유가 되지 않는가? 이에

31) *Inst.*, 3.22.3-4 (OS, 4:382ff).

32) *Eph.* 1:4 (NTV), cited in *Ibid.*, 3.22.2 (OS, 4:381).

33) *Ibid.*, 3.22.2 (OS, 4:381), See also *Ephesians* (on 1:4).

34) *II Tim.*, 1:9 (NTV), cited in *Inst.*, 3.2.3.

35) *Ibid.*, 3.22.4. (OS, 4:383).

36) *Ibid.*

대한 칼빈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어떤 소르본느 대학의 체변가는 우리가 선악(善惡)간에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행할 행위의 성격(선 혹은 악)을 알고 계신다."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된 것을 모르고 입을 놀리고 있다.<sup>37)</sup>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를 멸망가운데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의 아궁이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sup>38)</sup> 또한 로마서 9장은 칼빈을 결정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 "만일 신의 예지(豫知)가 사람을 차별하는 데 근거가 된다면, 바울은 선택의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sup>39)</sup> 칼빈은 암부로스(Ambrose)의 학설을 두루 섭렵하고 있으나,<sup>40)</sup> 비슷한 성격적 근거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만일 인간의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바울은 우리들에 대한 신의 차별을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적대자들의 주장을 좀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인간의 행위를 다 한 마디 말로만 긍정하고 들어가기만 하였다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적대자들의 공격을 자초하였는가? 그 이유는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해서 진리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른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어 또 그에게 호의를 보여주신다. 그는 그가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어 또 그에게 호의를 보여 주신다. 그는 그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sup>41)</sup> 그러므로 고대 교회 저술가가 서술하였던 바와 같이 "신의 선택을 은혜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인 사람이 그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보다 훨씬 현명한 자이다."<sup>42)</sup> 어거스티의 말은 역시 진리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

37) Ephesians (on 1:4). OC, 51;147

38) Ibid.

39) *Inst.*, 3.22.4 (OS, 4:383).

40) Ibid, 3.22.8-9 (OS, 4: 388ff).

41) Ibid., 3.22.8 (OS, 4: 389).

42) Ibid, 3.22.9 (OS 4: 390).

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sup>43)</sup>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목적이란 말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비밀스런 계획’의에 모든 것은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sup>44)</sup>고 슬회한다.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선택의 이유와 근거는 인간의 선한 행위나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에 대한 예지(豫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칼빈은 선택의 유일한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고 서술한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가 상술한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였다. 어느 면에서 보나 양자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양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은 받아들였으나 에서는 거부하셨기 때문이었다.”<sup>45)</sup>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고, 또한 천상(天上)의 삶을 누렸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는 왜형상의 차이점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유기된 에서와 그의 예정에 의해 선택된 야곱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sup>46)</sup> 혹은 바울이 에베소서 1:5, 9절에서 언급한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 외에는 어떤 자나 어느 것도 그분의 선택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택시에 인간의 행위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sup>47)</sup> 만일 우리가 야곱과 에서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다른 대답은 찾을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sup>48)</sup>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43) Ibid, 3.22.8 (OS 4: 389).

44) Ibid, 3.22.4 (OS 4: 384).

45) Ibid, 3.22.5 (OS, 4: 384).

46) Ibid, 3.22.6 (OS, 4: 385).

47) Ibid 3.22.6 (OS, 4:385).

48) Romans 9:15 (NTV). OC, 49:181-182 cf. Inst., 3.22.6.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이례 대해 에베소서1:5절에서 답변한다. - 바울의 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우리는 종종 “그 기쁘신 뜻”을 재쳐 두고 선택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의도(Will) 외에 다른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은 악하다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유와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sup>49)</sup>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하나님의 예정)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선포된 것은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주에 의해 선포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무조건 행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하셨는지가 침묵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행위이다.<sup>50)</sup> 칼빈은 프랑스 개혁 교회의 이름으로 프랑크푸르크의 디트(Diet)에게 보낸 그의 1562년에 나온 “신앙 고백”(Confession of Faith)에서 상술한 내용을 그대로 약술하고 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선택 하시기를 기뻐하시어서 우리를 선택 하셨다는 사실 외에 다른 선택의 이유를 찾지 말아야 한다.”<sup>51)</sup> 칼빈이 주장한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의 신계님의 하나님을 ‘절대적 능력’으로 설명한 중세기의 신(神)개념과는 다른 것이다.<sup>52)</sup>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에 의해 수식된다. 그분의 의지는 ‘의롭고’, ‘거룩하며’, ‘바른’ 것이다. 필자는 유기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언급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칼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연원하나 선택의 근거, 혹은 기초는 엄연히 존재한다. 바울이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엡 1:4)고 강조하였을 때, 사실 그는 인간이 우월해서 주께서

49) *Inst.*, 3.23.2 (OS, 4:395f).

50) On II Tim 1:8-9, *Sermons on the Epistles of S. Paul to Timothy and Titus* p.703a (OC, 54:48).

51) Article 9. *Tracts and Treatises*, 2:142 (OC, 9:756).

52) Cf. *Inst.*, 3.23.2. See chap. 3, note 37 below.

구원하여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언급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될 만큼 그의 맘에 드는 자를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고자 ‘구속자’ 예수를 그들 가운데로 내려 보셨다.”<sup>53)</sup>

그리고 칼빈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엡 1: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의롭다 칭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늘 나라의 유업으로서 그들에게 상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sup>54)</sup>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섭리적 특성’을 결코 약화시키거나 변경시키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영원한 ‘신적 섭리’(divine decree)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sup>55)</sup>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은총을 만민에게 드러내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 유무나 지위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그분은 자의지(自意志)에 의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56)</sup>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된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가 우월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간이 자랑할만한 모든 것들을 한낱 쓸모없는 ‘폐물’로 만들어 버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53) Ibid., 3.22.1 (OS, 4: 380f).

54) Ibid 3.24.5 (OS, 4: 415). Cf. Calvin in the *Articles Concerning Predestination*: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선택의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구원)보다 순서상 앞서 있다.”(*Theological Treaties*, p.179 OC, 9:714).

55) Ephesians (on 1:5). OC, 51:148.

56) 첫 번째 증거는 섭리 선포의 시가-창세-전-에서 유래한다.



전제(前提)한 것이기 때문이다.<sup>57)</sup>

피기우스(Pighius)의 '허황된 주장'을 반박하는 가운데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요한복음 6:37절을 인용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 하리라." 칼빈에 따르면 우리가 여기서 세가지 명백히, 그러나 요약적으로 제시된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그리스도에게 오는 모든 자들은 이전에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이다. 둘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자들을 보호하시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관리인'이다. 만일 신자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할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이다."<sup>58)</sup>

#### IV. 선택의 목적과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로 성화(聖化)된 자가 되도록 하려 함이라. 주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였다. 첫째 목적은 칼빈의 말을 빌리면, '최종적 이유' 혹은 '궁극적 선택의 의도'(ultimate design of election)라 불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다. 둘째 목적은 그가 '선택의 당면 목적'(its proximate end)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성화'(our sanctification)가 그것이다. 에베소서 1:4절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에 대해 주석을 하는 가운데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바울은 궁극적 목적만이 아니라 당면 목적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어떤 실체가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

57) Ephesians (on 1:4) OC, 51:148.

58) *Eternal Predestination*, p.72 (OC, 8:273). Cf. also Calvin on John 6 in *Inst.*, 3.22.7.

혀 낫설은 생각은 아니다. 건축을 하는 목적은 살 거주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연한 목적이다. 그러나 그 건물 속에서 편하게 산다는 것은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문에서 떠났지만 이러한 사실을 여기에서 곁들여서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에(인간의 성화라는 선택의 목적)이어서 또 다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를 동시에 언급한다고 해서 전혀 모순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택의 최상의 목적이고 우리의 영화는 부차적인 목적이다.<sup>59)</sup> 에베소서 1:6 절에 나오는 구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언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궁극적 목적은 12절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부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은 이 목적을 되풀이하여 서술한다. “우리가 단지 그의 자비를 받는 길그릇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sup>60)</sup> 하나님의 영광은 칼빈의 가르침에 있어서나 그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 특히 강조점이 되어졌던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이 그의 잘 알려진 모토였다. 에베소서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기독교 강요」의 선택 교리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에 대해 한층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선택 교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얻게 되는 “유익한 열매 중의 하나가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 관심사로 삼는 칼빈의 태도는 그의 선택 교리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선택의 당연 목표-우리의 성화와 이 목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질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선택의 당연 목표는 선택자들의 성화이며,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엡 1:4)이다. 성화된 신자들은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선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여 주셨다. 로마서 8:29-30절은 이러한 수단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 준다. 그것은 하

59) Ephesians (on 1:4). OC, 51:147.

60) Ibid., 1:12 (OC, 51:152).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칭의'(Justification)와 '영화'(glorification)이다. 수단과 목적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우리는 '선택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선택한 수단이라고 간주한다. 그 다음에 선택자들이 선택받은 목적이 실현될 영광 중에 들어가기 전까지 '칭의'를 또 다른 선택의 수단이라고 간주한다.<sup>61)</sup> 이러한 사실은 전체 칼빈 신학에 대한 선택 교리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어 준다. 선택은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섭리'(예정)로부터 영광 가운데 있을 영원한 섭리의 '최종적 완성'에 이르기 까지 전(全)구원 과정에 다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선택은 '신앙론' '하나님 지식' '구원론' '교회와 성례' '종말론' 등의 주제와 다 관련을 맺고 있다.<sup>62)</sup> 칼빈은 마침내 예정론 논의를 할 올바른 위치를 발견하였는데 구원론을 주로 다룬 「기독교 강요」 '제3권'이 바로 거기였다. 구원론은 종말론에서 절정을 이룬다. 왜냐하면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를 두려워 하는 자와 같이 하기 때문이다(시 103:17). 칼빈은 이 점에 관하여 찬성의 뜻을 표한 끌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의 말을 인용한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축복까지"<sup>63)</sup>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사용하시는 또 다른 수단이 '설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정을 실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가 허락하신 수단들을 사용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은 그분의 명령과 그의 주권적 지배(主權的支配)하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 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며, 듣는 사람 중에서도 그 반응은 재각기 다르다.<sup>64)</sup> 그 이유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음 전파가 '선택의 샘'에서 흘러나오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도 복음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sup>65)</sup> 선

61) *Inst.*, 3.21.7 (OS, 4:379).

62) *Ibid.*, 3.21.1. See also Polman, *De Praedestinatieleer*, pp. 357-377;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pp.105, 107; and Heinrich Quistorp,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p.24. Quistorp 은 선택과 종말론을 쌍둥이 교리로서 언급하고 있다.

63) *Ibid.*, 3.22.10 (OS, 4:392).

64) *Ibid.*, 3.22.1 (OS, 4: 368f).

65) *Ibid.*, 3.22.1 (OS, 4: 410).

택의 증거가 되는 “부르심(calling)과 로마서 8:30절에 언급된 부르심은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 지게 된다.”<sup>66)</sup> 이러한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한 가지 수단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미 그의 자녀로써 입적시키셨지마는 그들이 불리움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써 선택되었는지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주 하나님 선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sup>67)</sup> 복음을 모든 사자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일부 개인에 대한 ‘특별 선택’과 모순되는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술한 사실-복음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담대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답변한다. 그는 약속의 보편성(universality)은 특별 은혜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담대히 대답하였다.<sup>68)</sup>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 유익한 것은 아니다.”<sup>69)</sup>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면, 모든 사람을 신성한 믿음의 띠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신앙을 주신다.<sup>70)</sup> 우리가 상술한 사실을 언급할 때 모든 사람에게 대한 복음 전파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다. 왜 보편 선택(general election)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는 개심의 영(the Spirit of regeneration)을 즉시 부여해 주시지는 않으신다. 오히려 ‘내적 은혜의 역사없는’ 외적 태도의 변화는 유기와 경건한 극소수인의 선택 사이의 ‘중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sup>71)</sup>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이야기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즉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으로 예정되었기 때

66) Ibid., 3.22.2 (OS, 4: 412).

67) Ibid., 3.24.1 (OS, 4: 410).

68) Ibid., 3.22.10 (OS, 4:390).

69) Ibid., 3.22.10 (OS,4:391). This latin is “ut efficaciter prosit”.

70) Ibid., 3.22.1 (OS, 4: 392).

71) Ibid., 3.21.7 (OS, 4: 378).

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저주받은 존재로 이미 운명지어졌기 때문에 장래에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 그는 선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선택되기로 예정되었는지 또 누가 멸망받기로 예정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선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그들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에 동참하도록 기원해야 한다.<sup>72)</sup> 아울러, 칼빈은 복음 전파 그 자체는 '유기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한다.<sup>73)</sup> 그러므로 복음은 들었으나 이를 명백히 거절한 자들은 예수 탄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복음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보다는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sup>74)</sup> 복음 전파는 그 무엇보다도 선택을 실제화(實際化) 혹은 유효케 해 주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칼빈은 복음 전파를 '선택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로 묘사하고 있다.<sup>75)</sup> "선택자들은 출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모여들게 된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모여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각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각 자는 그리스도의 품안에 안기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목자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그들은 누구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선택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로 추락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sup>76)</sup> "선택자들의 심령 속에서 들려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서 유래한 것이며, '성령의 역사'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내적 부르심' (inner call)은 부인할 수 없는 선택의 증거(pledge)이

72) Ibid., 3.23.14 (OS, 4: 409f).

73) Ibid., 3.24.12 (OS, 4: 396). Cf. Herman Kuiper, *Calvin on Common Grace*.

74) Ibid., 3.24.12-13.

75) Ibid., 3.24.1. (OS, 4: 410).

76) Ibid., 3.24.10 (OS, 4:421). Cf. 3.24.11 :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들이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신다.

다.”<sup>77)</sup> 칼빈은 선택과 신앙과 관계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두가지 ‘과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 ‘과오’는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간주하여, 인간의 동의에 의해서만 선택이 유효하게 될 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에 앞 세우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78)</sup>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sup>79)</sup> 둘째 ‘과오’는 선택이 신앙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은 의심스러운 것이 되고 소용 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80)</sup> 칼빈은 이에 대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야 선택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수용함으로 선택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였다.<sup>81)</sup> “칼빈은 물론 우리가 선택 받은 것 자체가 증명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sup>82)</sup>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분명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인 파이프와 물이 발원(發源)하는 원천인 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sup>83)</sup> 이런 이유로 해서 칼빈은 믿음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면 믿음은 선택과 적절이 조화될 수 있다고 피력한다.<sup>84)</sup> 선택은 신앙의 어머니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포된 섭리(선택)를 실현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화’ ‘칭의’ ‘부르심’의 수단을 사용하신다. “주님은 그의 선택자들을 부르심과 칭의로 인치신다. 그러므로, 칼빈은 다음과

77) Ibid., 3.24.2. (OS, 4: 412). ‘Interior igitur haec vocatio pignus est salutis quod fallere non potest’

78) Ibid., 3.24.3 (OS, 4: 413).

79) Ibid.

80) Ibid.

81) Ibid.

82) Ibid.

83) Ibid.

84) Ibid., 3.22.10 (OS, 4: 392).

같이 서술한다. 우리는 선택자들이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선택받은 증거라고 믿는다. 역시 칭의도 그들이 선택받은 또 다른 증거로 간주한다.<sup>85)</sup> 상술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칼빈의 예정론은 인간의 책임을 전혀 도외시하는 사설(邪說)이라고 말한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그의 논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sup>86)</sup> 칼빈은 어떤 사람이 예정론을 그러한 불경한 말로 오염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므로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sup>87)</sup>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면 우리가 주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sup>88)</sup> 사돌레토(Sadoletto)는 칼빈의 예정론이 인간의 책임과 해야 할 바를 도외시한 사설(邪說)이라고 주장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칼빈은 그의 악담(惡談)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의롭다하시고 그가 의롭다 하신 자들을 축복된 삶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죄의 세력에서 구하여 의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놓으셨고 또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예정론'이 하나님자들을 게으름뱅이나 자기의 해야 할 바를 다하지 못 하고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게으름뱅이'로 만든다는 주장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살전 4:7)라고 한 바울의 말은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9)</sup> "우리는 우리의 선택받은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칼빈도 역시 제기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sup>90)</sup> 이러한 질문은 구원의 근거인 선택에

85) Ibid., 3.21.7 (OS, 4: 379).

86) Ibid., 3.23.12-14 (OS, 4:405ff).

87) Eph. 1:4 in Ibid., 3.22.3 (OS, 4:382).

88) Ibid., 3.23.12 (OS, 4:406).

89) Reply to Sadoletto, in *Teacts and Treatises*, 1:43f. (OC, 5:398-399).

90) *Inst.*, 3.23.4 (OS, 4:414).

대해 속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한 번씩 제기하는 질문이다. 사탄은 이를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칼빈은 “사탄은 하나님자들에게 그들이 택함 받은 사실을 의심케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준다. 동시에 사탄은 선택 외에 신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유혹한다. 이것이 사탄이 신자들에게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라고 주장한다.<sup>91)</sup> 우리가 과연 택함을 받았느냐 못받았느냐를 알려는 바램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된 점은 그릇된 방법으로 사실을 알려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은 ‘바른길을 벗어난 일’이다.”<sup>92)</sup> 만일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삼켜 버릴 끝없는 미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가게된다. 우리는 여기서 전혀 헤어날 수 못하고 언제까지나 암흑 가운데서 헤매게 될것이다.’<sup>93)</sup>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잃게 된다.<sup>94)</sup> 칼빈은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한 칼빈의 주장을 상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선택의 거울’(mirror of election)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sup>95)</sup> 하나님께서 그의 호적에 입적시킨 자녀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엡 1: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을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상 주실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느 누구를 통해서건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된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의 소유물로 만들기를 작정하신 자들을 예수그리스도에게 속 하셨기 때문에 그리

91) Ibid.

92) Ibid.

93) Ibid.

94) Ibid.

95) 매우 드문 경우에 이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거울’을 인용하고 있다. cf. *Inst.*, 3.22.1. (OS, 4:380).



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그리고 뚜렷이 알 수가 있다(계 21:27).<sup>96)</sup> 우리는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택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취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의 영원한 특전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sup>97)</sup> 우리가 선택받은 확실한 증거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훑쳐보려는 호기심 어린 시도에서도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인간된 우리가 취할 태도라며-그리스도를 통해 그 동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선택받은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sup>98)</sup>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셨는가를 알아보면 된다."<sup>99)</sup> 이러한 언급이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칼빈이 서술한 바와 같은 의미이다.<sup>100)</sup>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된 것을 확실히 알고, 여기에서 나오는 한없는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sup>101)</sup>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전혀 의심치 않게 된다. 그러나 미래는 어떠할까? 어떤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진 것 같고 그리스도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얼마 못가서 그들은 다시 불신자들의 생활로 빠져든다. 칼빈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정공법(正攻法)으로 대처하였다. 미래에도 역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변함없이 붙들어 두신다. 그리스도는 현재나 장래의 모든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96) *Inst.*, 3.24.5. (OS, 4:415f).

97) *Ibid.*, (OS, 4:415).

98) *Ibid.*, (OS, 4:416).

99) *Ibid.*, 3.24.6. (OS, 4:417).

100) *Ibid.*, (OS, 4:416).

101) *Ibid.*, 3.24.4. (OS, 4:415).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sup>102)</sup> 칼빈은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단번에 그의 소유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안정히 거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sup>103)</sup>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가 되시며, 그분의 불변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없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sup>104)</su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확실한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의 약속을 의심하는 불경죄를 짓는 것이 된다. ‘오! 주님! 만일 제가 선택되었다면 그 증거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sup>105)</sup>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여겨졌던 어떤 사람이 후에는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채 주의 약속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다.”<sup>106)</sup>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귀중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아버지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信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와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멸망되지 않으리라는 주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조금도 경감시켜서는 안 된다.(요 3:16, 6:39)”<sup>107)</sup>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실을 알려 주는 ‘거울’로써 예수를 설명한 바울의 언급은 딱딱한 추상적 이론을 피해 그의 신학적 방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칼빈이

102) Ibid., (OS, 4:417). 칼빈은 요한복음 6:37절 외에 요한복음 6:37,39; 10:27-28; 마태복음 15:13; 요한일서 2:19; 로마서 8:38; 빌립보서 1:6; 누가복음 22:32을 인용하고 있다.

103) Ibid.

104) Ibid., 324.5. (OS, 4:416).

105) Ibid.

106) Ibid., 324.7 (OS, 4:418).

107) Ibid.

소위 '실제적 방법론(syllogismus practicus)'를 독자들에게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도 상술한 사실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sup>108)</sup> 사실, 칼빈이 주장했던 바와 소위 '실제적 방법론(Syllogismus Practicus)'사이에는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가느다란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따라서, 칼빈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신뢰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선한 행위를 들추어 내는 오류를 범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가 참으로 강조하였던 바는 신자들을 위하여 하였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칼빈은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은 증거들-부르심, 칭의, 성화-을 보아서 알 수 있다고 슬회한다.<sup>109)</sup> 그러나 여기에서 칼빈은 이런 증거들과 인간 자신의 노력을 현격히 구분시키고 있다. 그가 이런 증거들에 대하여 자세히 상술 할 때 그는 결코 신자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증거들을 있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른 것이며, 그의 사역의 결과에서 파생된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인용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sup>110)</sup> "만일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셨는가를 알아보면 된다."<sup>111)</sup> 장래에도 우리가 구원의 안연(晏然)함에 거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달린 것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음성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듣게 된다."<sup>112)</sup> 칼빈은 그의 소책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에서 이 점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에서 서술된 내용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원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에게 기초하고 있고, 약속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다."<sup>113)</sup>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

108) 참고: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2(part2) : 369; *Church Dogmatics*, 2(part2) : 335f. cf.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pp.170ff., 175ff.

109) *Inst.*, 3.24.4 (OS, 4:414). "In iis signis posterioribus".

110) *Ibid.*, 3.24.5 (OS, 4:415).

111) *Ibid.*, 3.24.6 (OS, 4:417).

112) *Ibid.*, 3.24.2 (OS, 4:412).

113) *Eternal Predestination*, p.56 (OC, 8:260).

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한 칼빈의 주장은 결코 영원한 선택의 섭리적 특성(decretive character)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알려 주는 '거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칼빈의 언급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헛된 시도에 대해 칼빈이 경고하였을 때 그는 결코 영원한 선택 섭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아니다.<sup>114)</sup> 그가 여기서 크게 관심을 가졌던 바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며, 그의 선택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칼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직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 즉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확실히 참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선택)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칼빈은 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선택은 신앙에 앞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에게 주어진 자들이 자기 안에서 마음의 안위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타나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의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선택된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5)</sup> 칼빈은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도록 요구했다.<sup>116)</sup> 그는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르심'과 신앙을 통하여 그들이 선택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114) Cf. also Ibid, pp. 126ff. (OC, 8:318ff). Torrance (in *Calvin's Doctrine of Man*) and Dowey (in *The knowledge of God*) left the opposite impression.

115) *Eternal Predestination*, p.127 (OC, 8:318-319).

116) On II Tim 1:9-10 Sermons on Timothy and Titus, p. 708b (OC, 54:54).

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전혀 도의시 하지 말 것도 경고하였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신 사실을 알지마는 이러한 사실이 이 모든 것에 선행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선택)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sup>117)</sup>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 없으신 선택을 다시 한 번 요약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자의(自意)에 따라 택할 자를 택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자의적(恣意的) 선택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 비방받을 것이 전혀 없게 되어진다. 모든 성경의 증언을 숙고하건데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선택 교리를 올바른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평화와 안위를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칼빈의 언급은 본장의 결론을 적절히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정론에 대한 논의 자체가 흔히 ‘과도치는 바다 위의 향해’와 비유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행위를 자초하지 않는다면 필자의 ‘예정론 논의’는 아주 순순히 위험에 빠지는 행위를 자초하지 않는다 면 본인의 ‘예정론 논의’는 아주 순순히 진행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고자 하고, 선택의 지식을 획득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는 무지의 심연 가운데로 끌어내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아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예정)을 올바르게 적절히 찾으려는 자는 한없는 위로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118)</sup>

117) *Ibid.*, p.710a Cf. also pp.706-708.

118) *Inst.*, 3.24.4. (OS, 4:414f).